

하느님 자비심의 신심

묵주를 이용한 하느님 자비심의 5단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의 순서로 시작 한다.

큰 묵주 앞에서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매단마다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5단을 모두 마친후 성모찬송 대신에,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3번)

1931년 2월 22일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하느님 자비의 사도의 사명을 맡기시는 첫 계시를 주셨다.(일기 47-50) 하느님 자비의 상본(성화)은 그날 파우스티나 수녀가 환시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기인한다.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가 받은 사명은 하느님의 자비심을 일깨우고 하느님 자비의 신심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 상본을 만들고 하느님의 자비축일을 지내며 오후 3시, 하느님의 자비의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갖는 것과 하느님의 자비 신심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다.

"딸아, 나의 자비에 관하여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일일이 부지런히 잘 기록하여라. 많은 영혼들이 이 글을 읽고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일기1142) "너는 내 자비의 수행인이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이 일을 하도록 너를 선택 했다."(일기 1605)

파우스티나 수녀는 1934년 부터 생애의 마지막 4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자비에 관한 것들과 하느님과 자신의 영혼의 만남에 관계되는 것들을 일지를 쓰듯이 1828 메세지 일기안에 기록 하였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자비는 나의 사명'과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일기' 2권이 출판되어 있다. 1935년 9월 13-14일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며 받아쓰게 하셨다.(일기 475 - 476) 예수님께서서는 이 계시에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이 기도의 가치와 효력을 보여 주셨으며 이 기도에 따르는 약속도 부과 하셨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친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 자신을 결합시킨다. 하느님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들으시기에 가장 설득력있는 논증을 사용한다.우리는 우리자신과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께 청한다. '우리'라는 말은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과 지향을 두고 기도해 주어야하는 그 사람이다. 온 세상은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가리킨다. 이 기도로써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신심의 핵심은 의탁(신뢰)과 자비이다. 의탁은 모든 상황에서 단순하게 천상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전능에 끝없이 의탁하는 어린아이의 태도이다. **"내 자비의 은총은 하나의 그릇, 즉 의탁에 의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더 많이 의탁할 수록 더 많은 은총을 얻을 것이다."(일기1578)** 자비는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이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기 바란다. ---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3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으로, 둘째는말로써, 셋째는 기도로써이다. 이 세단계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나에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내 자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다"(일기 742)**